

2026. 2. 17.

설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더온누리교회

THEONNURI PRESBYTERIAN CHURCH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84-9
063-211-1324 <http://www.theonnuri.org>

목 도

인 도 자

사랑하는 하나님,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지나온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새롭게 열어주신 올해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 같 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보다 귀하다
 2. 세상 부귀 안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3. 어둔 골짜지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함께 드리는 기도 ----- 다 같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동안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부모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는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 씀 ----- 잠언 3장 5 ~ 6절 ----- 다 같 이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설날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될 새해를 기대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한 해가 될까?”,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까?”, “우리 가정은 평안할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삶의 무게만큼 염려가 있고, 아이들은 저마다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하여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잠언 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란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내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물론 경험과 지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까지 모두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우

리가 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까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말을 주목하여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큰 결정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과의 여부를 떠나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뒤돌아 보면 계획대로 되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가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 길은 비록 느려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눔 질문 :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산다면 어떤 모습이 달라질것 같나요?

축복과 은혜 나눔 ----- 다 같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결단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가족의 연장자께서 선조들의 본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나 성품, 또는 가훈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덕담을 주고 받으셔도 좋습니다.

마 침 ----- 주기도문 ----- 다 같 이